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세션 1, 서론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입니다.

다음 몇 세션에서는 신약 신학, 더 구체적으로는 신약 성경 신학을 살펴볼 것입니다.

신약 신학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신약 신학이 무엇인가, 혹은 성경 신학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어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신약 신학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신학은 구약 자체에서 전개되고 소개된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성경 신학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약 신학을 성경 신학의 일부 또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하지만 신학이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불필요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다. 마치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실 성경 신학이라는 단어는 성경 신학을 하거나 신약 신학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 글쎄, 대부분 신학자들은 자신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훑어보면 신약과 구약 본문에 대한 참조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구약과 신약 본문에 대한 암시와 인용문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현대의 체계적 신학을 집어보면 구약과 신약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 참조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성경 본문을 언급하기 때문에 성경 신학인가? 그것들이 구약과 신약 본문으로 가득 찬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인가? 그러므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기반을 둔 신학이나 성경을 주요 주제로 삼거나 성경 참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학은 모두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경 신학은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성경 신학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단순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약 신학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성경 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 신학과 우리가 언급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현대 체계 신학이나 기독교 종교 강요 또는 칼 신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체계 신학과 같은 다른 학문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체계 신학이라고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통 대부분의 성경 교리 수업이나 체계 신학 수업 또는 신학 101 또는 우리 대학과 신학교에서 부르는 대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체계 신학은 보통 성경에 전적으로 기초한 학문이지만, 논리적으로, 주제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즉, 그것은 비시간적이거나, 비시간적 학문이거나, 어떤 이들은 동시적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매우 광범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여겨져 온 범주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비역사적 학문입니다. 즉,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또는 교회는 무엇인가? 또는 예수는 누구인가? 또는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따라서 그것은 교회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주제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논리적이고 계층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역사적인 이러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전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종합하려는 질문을 던집니다.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역사적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이 다른 저자들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또는 주제나 개념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더 광범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은 누구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등등, 등등.

교회란 무엇인가? 그 기능은 무엇인가? 교회는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성경 가르침을 모아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하여 그 질문들에 답하려고 한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어떤 면에서는 다소 단순한 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경 교리나 전통적인 체계적 신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체계 신학 책을 집어들고, 그것이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성경이란 무엇인가, 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성, 그의 사역, 성령, 교회 등등, 구원에 대한 섹션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주제, 그 다른 주제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다루고 그에 따라 배열합니다. 또한, 체계 신학은 또한 세계관 형성에 더 많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그리고 대조적으로, 저는 그것이 충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성경 신학의 분야는 실제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텔벗 신학교의 두 저자인 클링크와 로켓이 최근에 출간한 책에서는 주로 역사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부터 문학적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그리고 신학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거의 체계적 신학에 더 가까운 것까지 성경 신학에 대한 다섯 가지 다른 종류

또는 다섯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신학에 대한 다섯 가지 이상의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정의하기 어렵지만, 성경 신학을 다른 학문, 특히 체계 신학 학문과 구별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계 신학과 마찬가지로 성경 신학은 성경 전체에 기초합니다. 성경 전체,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경의 구원적 역사적 스토리라인이나 줄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문학적 장르에 민감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저자의 독특한 강조점에 민감합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범주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더 시간적이고 통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경-신학적 주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신약 자체에서 절정과 성취를 찾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 신학은 때때로 체계적 신학을 하는 데 필요한 다리 또는 일종의 단계로 여겨진다. 즉, 성경 신학은 체계적 신학이 단순히 다른 교리나 다른 신학적 주제에 대한 증거 텍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성경 신학을 다리 학문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성경 신학은 건전한 해석, 개별 텍스트 해석, 역사적 맥락에서 텍스트 해석, 저자가 의도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서 말했듯이 구약과 신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학적 유형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신학과 비교하고 대조할 때 성경 신학은 그런 것입니다. 체계적 신학은 주어진 주제나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이상하고 일시적이며 더 광범위한 질문을 하는 반면, 성경 신학은 성경의 스토리라인, 성경의 줄거리, 텍스트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역사적 맥락에서 다양한 저자의 강조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문학적 유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우리가 신약 신학이나 성경 신학의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경 신학이나 신약 신학을 할 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성경 신학이나 신약 신학을 하는 사람과 학생이 구약과 신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주제를 설명하는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지배적인 주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 지배적인 주제가 있습니까? 자전거 타이어를 보면 허브가 주요 주제이고, 그것과 연결된 모든 스포크는 중심을 찾고 그 허브나 주요 주제에서 초점을 찾는 다른 모든 주제가 됩니다. 역사상 다양한 사람과 시대가 신약 신학이 구성되어야 하는 지배적인 주제로 떠오르는 다양한 중심이나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종교 개혁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신약성서의 지배적인 주제였고, 그 주위에서 다른 모든 것이 전개되었습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이자 신약학자인 루돌프 볼트만은 지배적인 주제가 실존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신약 전체를 비신화화하고 모든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면, 주된 메시지는 실존적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신약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조지 엘던 래드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 역사 또는 구속의 역사,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배적인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신약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주요 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언약은 구약으로 돌아가서도 구약 신학에서 월터 아이크로트는 언약을 지배적인 주제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사실 최근이지만 그의 주요 신약 신학 책, 일종의

대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와 작품에서 그렉 비일은 새 창조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주요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주요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약학자인 랄프 마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해가 지배적인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Southern Baptist Seminary의 토마스 슈라이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약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신약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0년대 초, 게르하르트 하젤이라는 작가는 그가 멀티플렉스 접근법이라고 부른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지배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지배적인 주제라고 제안했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지배적인 주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약 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제안 중 하나이지만, 아마도 다양한 제안은 지배적인 주제를 찾으려는 것이 불법적이거나 심지어 불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여러 주제가 서로 관계를 맺도록 허용하고 그 중 하나를 주요 주제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배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히 신약과 구약에서 발견하는 여러 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 가능한 제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살고 거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통일된 신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신학이 신약성경에 있습니까?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다양한 자료와

너무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신학이 다르거나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양성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실마리나 일종의 포괄적인 서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중심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중심이 있을까요? 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순되는 신학이나 다른 신학은 없지만 중심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함께 묶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일부는 그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다양성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성경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달하는 역사 속의 행위에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성경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 계시로 본다면, 다양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에 대한 통일된 신학이나 통일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 명의 저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통일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주장할 곳이 아니지만, 나머지 과정에서는 성경 자체, 즉 신약이 어떻게 통일성을 보여주고 입증하는지, 그 통일성이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데 기인하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약 신학의 소재입니다.

신약 신학을 위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길게 논쟁하지 않고도, 저는 교회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권위 있는 계시로 고백하는 구약과 신약 정경의 66권이 신약 신학을 위한 정경적 한계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 문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 일부 유대 문헌과 다른 신약 문헌에서 다른 텍스트와 문서를 기꺼이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경 신학은 교회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구약과 신약 정경에서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와 더불어, 독일인들은 전체 성경 신학 또는 일부에서 범성경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학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전체 정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부담이 주로 신약 신학이기는 하지만, 구약을 통합하고 전체 또는 전체 성경 신학을 수행하고 구약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약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주제가 어떻게 신약에서 절정과 성취를 찾는지 이해하지 않고는 신약 신학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완성하고 성취시키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신학을 하는 장소는 궁극적으로, 또는 모든 성경 신학은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 정경의 전체이며, 모든 신학은 전체 성경 신학이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고려하는 신학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적어도 일부 시간은 구약을 살펴보고 구약의 주제와 모티프를 개발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고 절정에 도달하는지 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신약 신학에 중심이 있는가? 그리고 저는 지배적인 주제가 하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된 신약 신학이 있는가, 아니면 신약에서 상이하고 모순되는 신학을 발견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약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양성이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에서 성취되는 역사의 행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신의 관점에서 보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하는 장소는 교회가 경전으로 고백하는 66권의 경전 정경인데, 이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문제는 역사 문제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구원적인 행위를 기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약 신학은 역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 신학, 즉 이야기 신학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우리가 가진 것은 구약과 신약의 사건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구속의 행위로 역사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구성될까요? 이 자료를 어떻게 다룰까요? 과거에는 신학의 신약 신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샘플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은 체계적 신학의 범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체계적 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신학과 사교를 조직한 범주, 예를 들어 신과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류학, 죄, 성령론, 그런 종류의 교회 등등, 성경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약 신학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레온 모리스가 쓴 짧은 책인 도널드 거스리의 『구신약 신학』을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주로 전통적인 체계적 신학, 즉 체계적 신학 텍스트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범주를 다루고, 이를 중심으로 신약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학을 구성하는 또 다른 가능성 또는 방법은 신약 전체에 걸쳐 개별 저자를 조사하고 그 저자와 그들의 책, 그 책에서 어떤 신학적 강조점이 나오거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언급한 조지 엘던 래드의 신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지배적인 주제, 즉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신학은 복음서와 공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등에 따라 정리됩니다. 또는 존더반이 제작한 프랭크 틸먼의 비교적 최근 작품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개별 책에 따라 정리하면서 단순히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 즉 성경적-신학적 주제가 다른 신약 책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또한 I. Howard Marshall의 신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을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신약 저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지만 동시에 이를 서로 일관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는 개별 책과 저자를 계속 조사하지만 계속해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연결하여 마지막에 모든 책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Thomas Schreiner의 최근 책인 *The King and His Beauty*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경 신학이지만, 그것은 단지 각 개별 책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니면 특히 구약에서 두 가지를 결합한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약이나 구약의 책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들은 성경 신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약 전체에서 전개되는 특정 아이디어나 주제 또는 단일 주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토마스 슈라이너의 신약 신학으로, 그는 여러 지배적인 신학적 주제를 취하고 이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각 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제로 시작해서 신약성경의 성경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주제들에 기여하고 그것들이 그 주제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포함합니다. 또는 Scott Hafemann과 Paul House가 쓴 최근의 책인 *Central Themes in Biblical Theology*는 언약이나 교회나 율법이나 구원의 역사와 같은 여러 주요 주제를 다루고, 다시 한번 속죄를 묻고, 그 주제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미국의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Don Carson이 현재 새로운 *Studies in Biblical Theology*에서 편집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리즈의 이름인 것 같고, 교회나 구원이나 부와 빈곤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다양한

주제와 모든 유형의 다양한 성경적-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각 주제에 기인한 책으로 성경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신약 신학을 하는 매우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주제나 지배적인 성경-신학적 주제를 취하고 신약이나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전개되는 주요 초점이나 주요 주제에서 약속에서 성취까지 스토리라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코비의 최근 책인 *The Ways of Our God*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배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묻고, 거의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스코비의 작업은 실제로 세 번째와 함께 갈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 전개되는 특정 아이디어나 주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주제와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나 서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접근 방식의 가장 좋은 예는 그레고리 비얼의 작업일 것입니다. 그의 최근 저서인 신약 성경 신학에서 절정에 달하는 작업인데, 구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되는지 살펴봅니다.

이 접근 방식 뒤에는 구약과 신약이 약속과 성취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의도적인 검토 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주제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구약을 거쳐 어떻게 발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서 어떻게 절정을 이루고, 요한 계시록에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에서 궁극적인 절정을 이루는지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중 일부는 하나 이상의 범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체계 신학의 전통적인 범주를 사용하는 작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들이 개별 저자나 책과 그들의 주요 신학적 주제와 강조점을 조사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종종 당신은 신약 신학이 특정 주제, 또는 어쩌면 하나의 주제나 주요 주제를 추적하고, 그런 다음 그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신학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주요 주제에서 스토리라인을 추적하고, 약속과 성취의 구조 속에서 그 주제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접근법이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접근법 중 하나의 중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취할 접근법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지배적이거나 주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의 스토리라인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저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제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신약 신학이 지배적인 주제로 식별한 것을 살펴보고, 그 주제가 구약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발전하는지 살펴보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에 비추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발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구약성서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저자와 다양한 문헌군과 그들이 이러한 주제에 기여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약성서 신학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신약 신학을 정의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내놓는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신학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위한 구원 활동에 대한 연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신학을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약 신학에 대한 많은 접근 방식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신학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에 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위한 구원 활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 신학이 특정 신약 문서와 특정 신약 저자들에게 어떻게 맥락화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어진 다른 책이 신약의 더 광범위한 신학적 통일성 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밝혀줍니다.

신약 신학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하워드 마셜이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중요한 저서에서 신약 신학이 또한 선교적 신학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 신학은 마셜이 주장하는 예수의 사명, 즉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응답하도록 부르는 예수의 사명과 관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헌신으로 응답하도록 부르는 그의 추종자들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신학은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을 형성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신약 신학은 주로 또는 적어도 학문적 분야가 아닙니다. 대학이나 신학교에만 국한된 분야가 아니지만, 신약 신학은 교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성경 신학을 하는 데 적절한 맥락은 무엇인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삶입니다.

따라서 신약 신학은 궁극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그것은 왕국을 시작하는 예수의 사명에 대한 신학이며, 사람들에게 응답하라고 부르는 신학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응답하라고 부르는 그의 추종자들의 사명과 관련된 신학입니다.

따라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학은 아마도 신약 신학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

신학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특정 신약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학을 신약에서 추출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신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구성,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신약 문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한 것을 종합하거나 함께 모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신학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비판은, 우리가 신약 본문의 실제 가르침을 그 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학으로 대체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

첫째, 우리 앞에 구약성경으로 구성된 경전 정경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의 이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자 시도하게 합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데 도움이 될까요? 경전 정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포괄적인 통일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 정경은 실제로 다른 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신학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신학이 어떻게 텍스트적으로 특정한 적용을 갖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신약 신학은 우리가 본문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신약 정경에서 발견하는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전체적인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제안하는 바를 이해하시죠? 그저 신약 신학을 신약의 가르침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대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신약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며, 그것이 기여하고 위치하며 저자가 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가정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약이 주로 설명적인지 여부입니다. 운동의 아주 초기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성경 신학이나 신약 신학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에, 성경 신학이 학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 신학은 단지 설명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성경 저자들이 믿었던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별 저자의 사고 과정이나 종교적 신념을 기술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 신학은 주로, 또는 바라건대, 신약 자체에서 나옵니다. 신약과 신약 본문의 해석은 범주를 통제하고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하는 방식을 통제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는 신약 신학이 설명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규범적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신약 신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구속적으로 행동하신 이야기이며, 구약과 신약의 문서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권위 있는 계시의 형태로 일하심을 증거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지휘하고, 하워드 마셜이 말했듯이, 신약 신학도 선교 신학이라고 부르는 신을 만나는 것은 성경 자체의 줄거리 또는 스토리라인에서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신과 마주하는 신학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절정에 달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모든 창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도록 부르고, 우리의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신학은 설명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신학이 규범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신학, 또는 더 구체적으로 신약 신학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간 언급했고, 몇 번 더 언급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성취되고 발전되는 성경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개발되었고 중요했지만, 성경 신학은 종종 약속과 성취, 또는

이미 그러나 아직, 또는 지금과 아직, 또는 진실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불리는 것의 틀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신약성경을 구약성경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읽어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학자들이 종종 “이미, 아직은 아니다”라고 특징짓는 긴장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그 다음에 그의 교회, 그가 형성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가 처음에는 “이미” 성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의 그의 강력한 행위와 행위 속에서, 그리고 그가 모은 사람들 속에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완전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창조와 예를 들어 요한 계시록, 특히 후반 장과 다른 곳에서 읽은 종말론적 완성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성취를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개념이라면, 이를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미이지만 아직은 아닌, 지금이지만 아직은 아닌, 약속의 시작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완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가 자신의 인격,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사역에서 구약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적 인물을 통해 왕으로 통치할 날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예수의 메시지와 자신의 인격에 응답함으로써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 왕국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왕국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베엘제붓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실인 듯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과 성취에 이르지 않은 무언가인 듯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지는, 글썄요, 이것들은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설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 더 나은 선택은, 아니, 신약이 이런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전체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 성취되고 이미 시작된 형태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성취된다는 사실과, 둘째, 그가 그를 중심으로 모은 추종자 그룹과 그가 세운

하나님 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서 성취된다는 사실 사이의 긴장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성취, 즉 하나님께서 미래의 새 창조에서 완성된 형태와 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더 큰 현실을 예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고, 다양한 성경적-신학적 주제, 특히 신약 주제를 살펴보고, 심지어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출현과 발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주제가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미래에 더 큰 완성된 성취를 예상하여 창조한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주로 구약의 성취에 비추어 신약과 구약을 연구함으로써 나타난 주요 주제에 관해 신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약 신학과 그들이 관찰하고 강조한 주제를 검토하는 것이 이 과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주요 주제를 형성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가능한 주제를 철저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구약 배경과 다른 신약 신학에 비추어 신약을 연구하여 나타난 지배적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어떻게 출현했는지, 구약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인 새 창조에서 어떻게 절정의 성취를 찾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그 주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적으로 드러내시고, 구약 과 신약에서 그의 약속의 성취를 구속적으로 이루시는 줄거리 또는 스토리라인의 일부로 그것들을 함께 모으려는 시도의 일부로 살펴볼 것입니다 . 이제 , 제가 말했듯이 신약 신학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로서, 저는 전체적인 성경 신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약 자체로 돌아가서 이러한 주제가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것이지만, 신약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것이 이 강의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주로 신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을 살펴보고 그 주제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섹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다음 몇 섹션에서 구약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신학의 시작이자 출발점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몇 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의도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처음 두세 장이

성경 신학, 심지어 신약 신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적어도 우리가 살펴볼 이러한 주제의 대부분이 처음 세 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이 시작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과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시작에서 성경 신학을 시작하는 장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은 성경 스토리의 시작이며, 아마도 구약에서 전개되지만 다시 한번, 그 절정과 성취를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나머지 성경에서 발견할 주요 성경-신학적 주제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하지 않을 내용을 반복하겠습니다. 지구의 나이 또는 창조-진화 논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 발견되는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적 수준이나 은유의 수준, 문자적 날과 비유적 날 사이의 논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기원이나 우리에게 시간이 없거나,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특히 신약 신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다른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해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지배적인 성경적-신학적 주제와 1-3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존재 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창조물이 그 존재를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으며 ,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화-창조 논쟁이나 이것이 문자적 날인지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1장의 주된 강조점과 초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창조물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덧붙여 말하자면, 이것을 원래 저자, 준비된 원래 독자,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겪어 온 모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실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땅을 주실지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창세기의 처음 몇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은 그저 말씀하시면, 사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신이 말씀하신 것은 실현됩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신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는 6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든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과학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과학과 여기의 창조 기록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종종 갖는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강조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하여 존재하게 하신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분에서, 그가 실제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으로 창조를 존재하게 하신 것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으로 새 창조를 존재하게 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음 섹션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을 통해 발전하고 신약에서 절정을 이루는 지배적인 성경적-신학적 주제를 표면화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창조물의 주권적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창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존재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입니다.